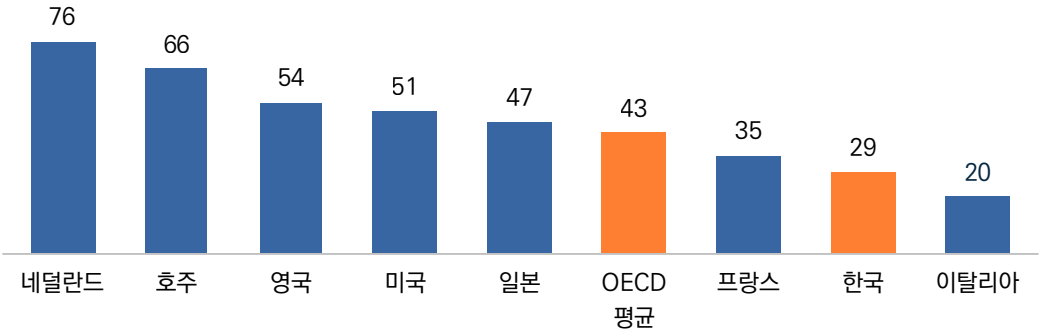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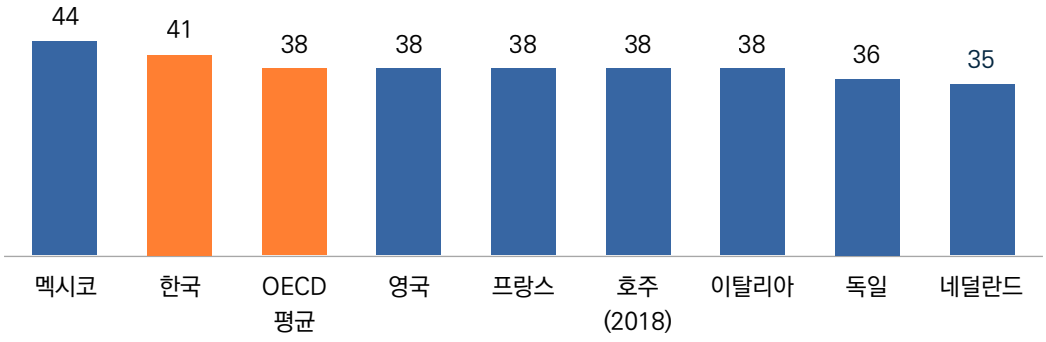
한국 노동시장 3고(苦),
청년 고용률 낮고, 주당 노동시간 많고, 노인 고용률 높아!

- 한신대 황규성 연구교수가 분석한 한국인의 '생애 노동시간'에 따르면 한국인은 늦은 나이에 첫 직장을 얻고, 한창 돈벌이할 땐 어느 나라 국민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며, 그럼에도 노후에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놓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를 한국 노동시장의 3고(苦)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, 이를 '청년 고용률', '주당 노동시간', '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' 세 항목을 통해 OECD 주요국과 비교해봤다.
-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022년 기준 29%로 OECD 주요 국가 청년들의 고용률 평균인 43%에 크게 이르지 못했고, 25~54세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1시간으로, 이 역시 OECD 평균인 38시간 대비 3시간 가량 더 길었다. 한편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(37%)은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6%의 2배 이상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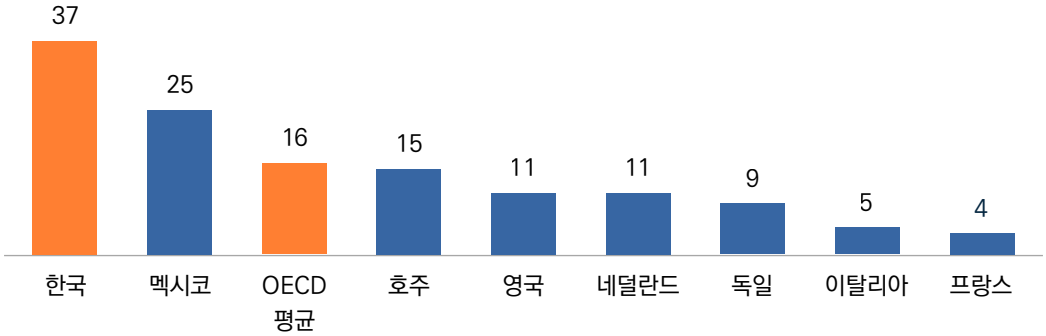
[그림] OECD 주요국의 청년 고용률 (15~24세 기준, 2022, %)



[그림] OECD 주요국 주당 노동시간 (25~54세 기준, 2020, %)



[그림] OECD 주요국의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(65세 이상 기준, 2022, %)



*자료 출처 : 한겨레, '시간 빈곤' 한국인…"늦은 출발, 장시간 노동, 늙어서도 돈벌이', 2023.06.15. (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096004.html?_ga=2.253132361.1736760670.1686635331-880143379.1642987505)